

[오늘의 성가] 시작:44 봉헌:221 성체:161 파견:202



“작은 것이 크다”

고찬근 루카 신부 / 서울대교구 성소국장

‘세쿼이아(Sequoia)’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중 어떤 것은 이천 년을 넘게 살며, 높이는 80 미터, 둘레는 30 미터, 무게는 1,300 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무척 작아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요. 매년 봄이 되면 거무튀튀한 나무에서 형형색색의 꽃과 어린 연두색의 새순이 터져 나오고 가을이 되면 달콤한 열매가 맺힙니다. 자연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힘이 느껴집니다. 오늘 복음에는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작지만 큰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 속에서 미소, 작은 선행, 작은 관심, 작은 용서 같은 것들은 점점 자라나 하느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가 작은 겨자씨같이 시작되는 것처럼, 작은 무관심, 작은 거짓말, 미움, 시기, 질투 같은 것들도 점점 자라나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수천억 개 은하의 엄청난 우주가 존재하고,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변하고, 봄이면 팝콘처럼 벚꽃이 터져 나오고, 웅알이를 하던 아기가 건장한 청년이 되고, 저녁노을을 바라보는 회색빛 노인의 뺨에 눈물이 흐르는 것은 모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세상만사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 보고 갑자기 큰 나무가 되라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는 한 사람의 슈퍼맨이 갑자기 세우는 것도, 제도와 법으로 인간을 통제함으로써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꽃이 피는 과정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은 활짝 피듯이 하느님 나라도 천천히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이룩되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여러 사람들의 작은 마음, 작은 선행, 고운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우리는, 조금증을 버리고, 어떤 경우라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며, 작은 것, 작은 일, 작은 마음들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사랑이란 것은 전염성이 있어서 누군가 사랑을 시작하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있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들의 작은 사랑들도 모이고 모이면 세상을 바꾸는 큰 사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돈이나 재물의 힘은 철석같이 믿으면서 하느님이 뒤에 계신 사랑의 힘은 별로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진정한 힘은 그 사랑의 힘인데 말입니다. 돈오점수(頓悟點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점진적 수행단계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욕심마저 버리고 성실히 수행할 때 문득 깨달음이 오듯이, 우리 안에 하느님이 심어주신 작은 겨자씨에 대한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느 날 하느님 나라를 받치는 커다란 사랑나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 공지사항

- 2012 년 여름 캠프
 - 일시 : 6 월 29 일~7 월 1 일 (2 박 3 일)
 - 장소 : Pine Lake Camp
 - 비용 : 성인 \$45 / 1 박, 청소년 \$30 / 1 박
- 다음 주 미사 때 첫 영성체 예식이 있겠습니다. 첫 영성체를 미리 축하합니다.
- 6 월 17 일 아버지의 날을 축하합니다.
- 미사 후 여름 캠프 준비를 위한 사목회의가 있겠습니다. 사목위원, 구역장님, 성모위원님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박규환 안젤로 신부 / 부산 영공성당 주임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 가운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PAY IT FORWAR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중학교 1 학년인 트레버가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실천하라’는 과제를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냥 과제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트레버는 진지하게 고민한 후 ‘도움 주기’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냅니다. 그가 생각해낸 ‘도움 주기’(pay it forward)는 매우 순진하고 단순합니다. 1 명이 3 명의 사람을 만나 도움을 주면서 그들에게도 3 명의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처음 1 단계에서는 1 명이 3 명에게 도움을, 2 단계가 되면 3 명이 9 명에게, 3 단계는 9 명이 27 명에게. 이렇게 한 단계를 거칠수록 그 수는 점점 증가하여 마침내 세상을 바꿀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엄마와 선생님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하지만, 그의 용기와 노력은 매번 좌절되고 맙니다. 하지만 도움 주기는 도움을 받고 공감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LA 를 넘어 미국 전역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트레버는 왕따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다 한 학생의 칼에 찔리게 됩니다. 그의 ‘도움 주기’ 과제는 무사히 끝났지만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는 전국 각지에서 트레버의 죽음을 애도하는 행렬을 배경으로 끝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시면서 세상 어떤 씨앗보다도 작은 겨자씨가 큰 가치를 뽐내 하늘의 새들을 깃들일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트레버의 ‘도움 주기’는 한 마리 작은 나비의 날갯짓(작은 겨자씨)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날갯짓이 함께하면서 어느새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태풍(하느님 나라)이 됩니다.(마르 4, 30~32 참조)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낯선 일입니다. 사람들 간의 물리적 거리는 과거에 비해 더욱 가까워 지라도 심리적 거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주고받는 도움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더는 확대되지 못하고 그 틀 안에 묶여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나눔입니다. 나눔 안에서 사랑은 확장되고 풍성해지며 완성됩니다.(루카 6, 32~35 참조) 트레버는 세상을 바꾸는 것(하느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은 간단하고 쉽다고 말합니다. “당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나에게 갚으려 한다면,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갚으라고 말하십시오.(Don't pay it back, but pay it forward)”